

화려한 건축물 속 보이지 않는 힘

김종호

(주)창민우구조건설тан트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건축구조 기술사회 전임회장)

(주)창민우구조건설탄트기술사사무소는 1989년에 설립되어 건축구조 기술발전에 헌신해왔으며, 미래지향적인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항상 최고의 품질로써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조설계 회사이다.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품질향상에 더욱 노력하고 있는 (주)창민우구조건설탄트기술사사무소 김종호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인생관과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 일 시 : 2008년 4월 16일 11:00
- 장 소 : (주)창민우구조건설탄트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실
- 참석자 : 김종호 사장, 한국기술사회 정무용 홍보위원장, 김경수 과장, 노우석 사원

사장님의 주요 약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1977년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와 사회 첫발은 (주)울건축에서 시작하여 12년간 현장에서 몸담았고 그 이후 (주)창민우건설탄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현재 (주)창민우구조건설탄트 기술사사무소 대표와 경희대학교 토목건축과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술사로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지상 107층의 초고층 '부산 롯데월드II'의 설계에 참여하여 초고층 구조설계 관련 연구자료를 국내·외 학회지에 지속적으로 발표하였고 플랫플레이트 슬래브 시스템(Flat plate slab system)을 채택한 지상 58층의 주상복합아파트 '더샵스타시

티설계에 매진하였습니다. 최근 송도신도시 개발사업에도 미국의 Gale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아파트, 외국인학교 설립 등 경제특구를 만들 계획인데 주거건물을 첫 시발점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플랫플레이트 슬래브 시스템(Flat plate slab system)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오.

플랫플레이트 슬래브 시스템(Flat plate slab system)이란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구조물을 지지하는 구조방식을 일컫는 것으로, 천정이 높은 쾌적한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리모델링 등의 공간 활용 면에서도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경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거푸집 작업량을 줄이고 철근배근을 간소화하여 기존의 방식으로 한 개 층 시공 시 7일 정도 걸리던 공사기간을 4일로 줄일 수 있어 공기단축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건설 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하며 유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인복(人福)이 많아서 훌륭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50여명의 직원 대부분은 주변이나 대학교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업무특성상 공채로 뽑는 것 보다는 추천을 받는 것이 우수한 인력확보에 유리합니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 후 직원이 주인인 회사로 만들어 자율성을 바탕으로 직원 개개인의 업무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성취감과 회사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 꾸준히 발전하게 된 비결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건축 분야가 다른 일반 사무직에 비해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고, 일이 힘들기 때문에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최대한의 복지 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과 관련, 일부 사람들이 이공계를 너무 비하하는 방향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인식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 정책적인 제도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기술사회와 기술사 후배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조언해주세요.

21세기는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산업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지식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IT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지식정보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시장주도세력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이나, 단체, 국가 모두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였고, 시장질서가 고도화, 하이테크화, 전문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사, 변호사와 변리사의 업무분리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건축구조분야의 설계, 감리업무의 상당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방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건축관련 법령의 제도적 개선은 물론이고 정부 및 기술사회는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화'의 정신을 살려 전문적 기술자들이 자신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전문 기술인의 역할을 존중하여야 하고, 기술인들은 이에 발맞춰 다른 분야보다 좀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전문지식과 업무수행에 대해 우리사회,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 충실했으면 합니다.

—바쁜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